

軍威 地域의 民家 特性에 關한 研究

- 화북댐 수몰지역을 대상으로 -

A Study on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Fork House in the 'Gun-Wi' Area

백 영 흠* 김 난 아**
Baek, Yeong-houm Kim, Nan-a

Abstract

This is a study on the houses that will be submerged by the construction of hwa-buk da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rd the folk houses that will be disappeared, and to make clear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folk houses in this area.

The type of site plan presents variously according to the location of several important factors. Types of site plan that are presented in this area are 4 (-, □, -), and □ type is general. Types of houses according to the number of front room unit are 2. And 3room and 4 room type enlarge the living space by installing the toe-gan. In case of the 4 room-type is having Maru between rooms. The 3 room type shows superior distribution than the 4 room type.

Keyword : Spatial Characteristics, Fork House, Gun-wi

1. 序論

1. 研究의 目的

한 지역의 전통적인 민가의 형태는 지역의 생활문화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른 건축유형에 비해 강한 전승력과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

민가는 지역주민에 의해 주거환경 변화에 적응하면서 생활에 편리한 양식을 형성, 발전하여 왔다. 이렇게 민가의 형태는 불변하

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발전하고 변화하면서 모방되고 타에 전파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민가의 형식은 그 지역 문화를 구분할 수 있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민가는 근대화,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본래의 모습이 많이 변형되었다. 뿐만 아니라 새마을운동·취락구조개선사업과 같은 국가의 정책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는 지역의 문화적·사회적 특성에 대한 배려없이 現代式 住宅의 형태로 무분별하게 건립하여 전통민가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주거공간의

* 정회원, 대구대 주거환경디자인학과 교수

** 정회원, 대구대 주거환경디자인학과 강사

특성을 상실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상북도 군위군 일대에 건설되는 화북댐으로 인하여 수몰되는 지역의 전통민가를 조사함으로써 이 지역의 주거공간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러한 조사자료는 한국주거사연구에 基礎資料로 活用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期待되어 진다.

2. 研究의 範圍와 方法

화북댐 건설로 수몰되는 인곡리, 장곡리, 학성리 3개 마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비주거용 건물과 블록조로 신축한 가옥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개조하더라도 전통적인 주거형식을 유지하고 있는 가옥을 포함한 총 43호의 민가를 조사하였다.¹⁾ 이들 민가는 동일한 지역내에 있으며 경제력도 비슷할 뿐 만 아니라 각 마을별로 비교될 만한 특별한 사항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통합하여 분석, 고찰하였다. 조사 방법은 민가를 실측 조사하여 이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민가의 배치형태 및 평면의 구성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조사는 2001년 7월 25일-28일에 걸쳐 예비조사를 하였으며, 2001년 8월 7일-15일까지 8일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II. 住居空間의 構成的 特性

1. 대상마을의 개황

군위군은 경상북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은 청송군, 서쪽은 구미시, 남

쪽은 칠곡군·대구광역시·영천시, 북쪽은 의성군과 접하고 있다. 경상북도 면적의 3.2%(613.98km²)에 해당하는 군위군은 남북이 짧고 동서가 긴 형태를 하고 있으며, 군의 동부지역에서 남서쪽으로 태백산맥이 뻗어내리고 있다.

고로면은 군위군의 1읍 7개면 중 가장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은 청송·영천군과 접하며, 남쪽에는 화산을 경계로 영천과 접하고 있다. 또한 북쪽은 매봉과 두마재를 경계로 의성군 춘산면과 접하고 서쪽은 반암산과 각시산이 우뚝 솟아 의흥면과 경계하고 있다. 반암산과 화산을 비롯한 크고 작은 산줄기와 그 사이를 흐르는 위천의 상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방이 산지로 둘러싸여 있고 마을도 위천의 물길을 따라 소규모로 형성되어 있다.

고로면(古老面)은 본래 의흥군에 속한 지역으로 小首面이라 하여 14개의 동리를 관할하였으나 한일합방 직후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巢野面·巴立面의 일부를 병합하여 신라시대의 고로곡부곡의 이름을 따서 고로면이라 개칭하고 군위군에 편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학성리는 태암마을로 170여년전 제주도 지사였던 장병구의 5대손이 장곡동에서 분가함에 따라 마을이 개척되었으며 일제시대에는 고로면 면소재지로서 번창하기도 하였다. 장곡리는 한티마을로 牙山人張應榮이 임진왜란을 피하여 이곳에 은거한면서부터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하며, 正谷(바랑골)은 동북방향으로 바로 뻗은 골짜기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라 한다. 인곡리는 조선시대때 의흥군 소수면과 의성군 소야면의 경계가 내를 기준으로 양지

1) 본 논문의 전통적 주거형식이란 일반구조양식에서 기둥과 보가 목조가구식 결구방식을 고수하고 벽체는 흙벽으로 구성한 것을 말한다. 단, 집이 노후하여 벽체나 기단부에 시멘트를 바른 경우도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

마을은 소야면, 음지마을은 소수면에 속
에 地境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마을 한가
운데 냇물이 흘러간데서 內浦라고도 불렀
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마을 개척에
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²⁾

이 지역은 자연부락마을로 성씨별 현황을
보면 순천박씨 12가구, 아산장씨 11가구, 경
주손씨 5가구, 경주김씨 5가구, 그외 동성이
5가구를 넘는 가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混性마을임을 알 수 있다.

2. 주거공간 배치형식의 분석

1) 좌향

전통민가에 있어서 좌향은 그 주택이 어
떤 집터에 앉음으로 좌가 생기고 그 주택이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향이 생겨 결국 어떤
주택이라도 좌향이 결정된다.³⁾

전통민가에 있어서 안채의 좌향 설정은
그 평면 형식과 아울러 민가배치의 출발점
이 되며 대문은 단위 주거와 마을길이 만나
는 경계부의 한 지점에 위치하여 그 둘 사
이를 연계하는 요소이다. 따라서 안채와 대
문의 관계는 민가배치의 성격과 내용을 규
정하고 단위주거와 마을길의 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인자라 할 수 있다.

안채 평면의 좌향은(그림1) 3개 마을 모
두 남향 인근 방위에 편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장곡리는 남향이, 인곡리는 서남과
동남향이, 학성리에서도 서남향이 우세한 것
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인곡리와 학성리의
마을이 서남향을 하고 있으며, 장곡리는 남
향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대문의 좌향은 안채와 집밖의 길 사이에
있어 안채와 길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문좌향 (그림
2) 역시 안채와 마찬가지로 남향 인근방위
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곡리와 장
곡리는 대부분 안채의 방향과 일치하는 향
으로 조사되었으나, 학성리는 동향에서 서향
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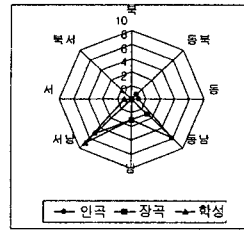


그림 1. 안채의 좌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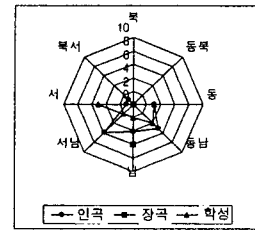


그림 2. 대문채의 좌향

이 지역의 민가는 일조권을 위한 일률적
인 남향 배치가 아니라 마을이 형성된 주위
의 대지와 지형의 지세를 고려하여 자연스
럽게 배치함으로써 최대한의 일조를 확보함
을 알 수가 있다.

2) 배치 형식

일반적으로 민가의 배치는 자연경관에 따
른 대응, 생활내용, 내·외부생활에 따른 공
간활용, 경제적 규모 및 건물의 동수에 따라
결정되어진다.

남부지방 전통민가의 안채와 부속채 배치
형식은 가옥의 규모에 따라 一字形의 가옥
이 한 채이거나 혹은 몇 채로 나누어 세워
지며 안채와 부속채가 직각으로 배치된 ㄱ
字形이 가장 일반적이다.

이 지역에서도 부속채 없이 안채만 있는
가장 기본적인 一字形 형태의 가옥과 안채
와 부속채가 직각으로 배치된 ㄱ字形, 그리
고 ㄱ字形에 부속채가 하나 더 추가된 ㄱ
字形 가옥등이 조사되었다.

대상가옥의 배치형태에서 가장 많이 나타
나는 형식은 ㄱ字形으로 전체의 61%에 해

2) 경북향토사연구협의회, 경북마을지, 1991.

3) 주남철, 한국주택건축, 일지사, 1987.

당하는 26호가 이 유형이며, 다음으로는 一字形이 10호로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冂字形과 一一形이 각각 6호(14%), 1호(2%)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一 자형	冂 자형	冂 자형	一一형
인곡	4(20%)	11(55%)	4(20%)	1(5%)
장곡	1(14%)	6(85%)	-	-
학성	5(31%)	9(56%)	2(12%)	-
계	10(23%)	26(61%)	6(14%)	1(2%)

표 1. 배치유형별 주택비율

3. 안채의 평면형식

전통민가 형식에 있어서 안채의 실구성은 부엌과 안방을 필수 기본 요소로 하며 집터에 안채위치를 정하는 것으로 민가의 배치가 시작된다. 따라서 안채의 실구성방식은 민가배치형식의 성격을 규정하는 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⁴⁾

경상북도 민가의 평면 유형을 살펴보면, 북부지역에서는 까치구멍집계열의 곁집형이 일반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중부지역으로 내려오면 반곁집, 홑집 등의 여러형태가 혼재되어 나타나며, 점차로 남부지역으로 올수록 홑집이 일반화 한다.

이 지역 민가의 안채 평면형식은 전면 칸수가 3칸 또는 4칸으로 이루어진 一字形 홑집이 대부분이나, 곁집도 2채가 조사되었다.

1) 3칸형

3칸 一자형의 가옥은 전체 가옥 중 84%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실구성은 부엌+방+방의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이들은 대부분 건립당시의 칸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기본형으로, 간혹 생활공간의

4) 주남철, 전제서.

편리를 위해 반칸정도로 방을 증축, 확장하거나, 2개 이상의 방을 하나로 뒀은 형태도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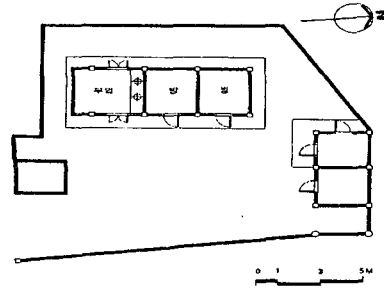


그림 3. 인곡리 공가

2) 4칸형

4칸 一字形 평면은 3칸 一字形의 방과 방 사이에 1칸 크기의 마루가 삽입된 형태로 14호(42%)가 조사되었다. 평면상 특이한 점은 대청 앞을 판벽으로 막고 2짝 세 살문을 설치한 경우와 좌측면에 퇴간을 설치한 경우도 조사되었다.

주거생활의 편의를 위해 부엌과 방을 다시 반칸정도 늘린 경우도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형태는 특히 학성리에서 다수 조사되었다. 이는 학성리가 면소재지에 위치하여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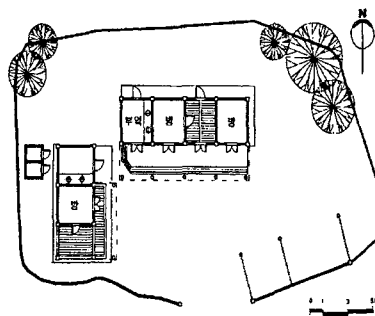


그림 4. 장곡리 박필녀씨가옥

3) 겹집형

겹집형은 장곡과 학성리에서 각각 1채씩 조사되었다. 이 유형은 정면 4칸 측면 2칸규모의 겹집형태를 취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민가의 중앙에 위치한 마루를 중심으로 우측에 건넌방이 상하로 분할되어 있으며 좌측에 안방과 부엌이 배치하고 있다. 이는 안채와 사랑채가 결합된 형태라 할 수 있으며 건넌방은 사랑채로 안방과 부엌은 안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선의 분리를 교묘히 하여 내외 공간을 분리한 특이한 형태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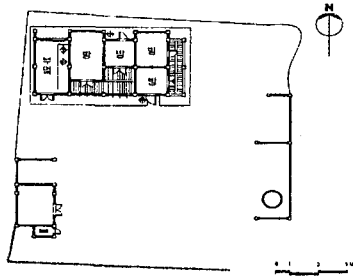


그림 5. 학성리 장재용씨가옥

이상에서 조사된 것과 같이 안채의 평면형식은 지역의 지리적위치나 영농조건 및 규모의 차이 또는 생활정서의 변화 등에 의해 변화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II. 결론

본 연구는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일대에 화북댐 건설로 인하여 수몰되는 지역의 전통민가에 대한 조사연구로써, 전술한바와 같이 한국주거사의 계통확립을 위한 자료제공과 전통민가의 배치, 평면형식을 알아보고 지역적 특성을 밝힘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좌향은 가능한 남향을 선호하나 대지의

조건과 지형에 따라 자연스럽게 배치할 뿐만 아니라 적당히 배치하여 최대한 일조조건을 확보하려고 노력함을 알 수가 있다.

2. 대상 민가의 배치는 一자형, ㄱ자형, ㄷ자형, 병렬형, 4가지 유형이 나타났으며, 특히 안채에 부속채가 첨가되어 ㄱ자형을 이루는 형태가 전체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3. 대상 민가의 평면형식은 안채의 정면간수를 기준으로 볼 때 3칸형 홑집이 대부분의 주류를 이루며 전체의 84%를 차지하고 있어 남부지방 민가에서 나타나는 전통적인 민가의 전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겹집유형이 일부 보이는 것은 군위지역의 지정학적 위치가 경북 동남부와 남부의 특징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 강영환(1991), 한국주거문화의 역사, 기문당
2. 경북 향토사협의회(1991), 경북마을지
3. 권세영, 김일진(1997), 옷골 경주최씨 씨족마을의 공간구성과 주거의 배치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7권 2호, pp.211-216
4. 장보웅(1992), 한국의 민가연구, 보진재
5. 정준현, 백영흠(1997), 무이마을 주거환경의 공간구성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학술발표논문집, 7권, pp.81-86
6. 조성기(1985), 한국 남부지방의 민가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7. 주남철(1987), 한국주택건축, 일지사
8. 한지만(2001), 경기지역 민가의 배치형식과 외부공간 구성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7권 9호 pp.201-210